

문서번호	건강관리과-6084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모자보건담당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홍성미	이춘옥	이응철	04/01 황원숙		
협 조					

## 2015년 제1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2015. 3.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2015년 제1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 8 조(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라 2015년 제1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I 개 요

- 일 시: 2015. 3. 25(수) 08:00~10:00
- 장 소: 성북구 보건소 8층 sb기획실
- 대 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 외 관련 담당자
- 회의진행: 개회, 보건소장 인사말씀, 2015년 사업안내, 2014년 사업 결과보고, 안건토의, 폐회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위원장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당연직
위원	윤여은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위촉
위원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위촉
위원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위촉
위원	최병재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당연직
위원	서원옥	성북구청 성북구자원봉사 팀장	당연직
위원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당연직
간사	이응철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 과장	당연직

II

**회의 결과**

의제	회의결과
1. 윤석준위원장사퇴에 따른 위원장 선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직은 성북구 황원숙 보건소장,</li> <li>- 부위원장은 성북구 치과의사회 윤여은 회장으로 선임</li> </ul>
2. 예약 후 치료에 응하지 않는 학생 발생에 대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치료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기간경과시 다음 대상 학생 우선지원</li> <li>- 지역아동센터장의 치료독려협조 및 재 치료 신청 가능</li> </ul>
3. 치과의원과 지역 아동센터 1:1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치과의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모든 참여 치과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 및 보건소간 상호 협의하여 지역아동센터와 1:1, 1:2 또는 1:3으로 전담 조정</li> </ul>
4.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자 실비지원(1일 1만원)유지</li> <li>- 지역아동센터 담당선생님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li> <li>- 각 동주민센터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봉사자 모집하는 방안 모색</li> <li>- 아동의 안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봉사자 신원 사전과약후 투입</li> </ul>
5. 치과 치료비 지원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치 레진 단가는 원재료비 상승으로 60,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상</li> <li>- 금관 CERAMIC 단가는 40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하</li> <li>- 그 외는 동일 금액으로 함.</li> </ul>
6.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과 같이 사업대상을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내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li> <li>- 아가세지역아동센터 등록된 만18세 이상 장애아동(1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승인함.</li> </ul>

### III 후속조치사항

- 회의록 공개
- 협의 결과 사업 반영
- 참석 위촉 위원 수당지급

(회의 진행시간 2시간: 100,000원×3명 = 300,000원)

#### ■ 회의 사진



■ 붙임 : 회의록 1 부 끝.

# 2015년 제1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록

## I. 개회 (사회 : 이춘옥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이춘옥입니다. 이른 아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2015년 사업 안내 및 2014년 사업 결과보고와 안건토의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3년동안 위원장으로 애써주셨던 윤석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의를 표하셔서 안건토의는 황원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 참석위원소개 및 위촉

황원숙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여은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영 성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재 성북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원옥 성북구 자원봉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애경 성북구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이응철 건강관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II. 인사말씀 [황원숙 소장님]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른 아침 꽃샘추위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년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올 예산은 2012년이나 대동 소이하게 책정되어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회의는 2015년도 1차 회의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응철 건강관리과장님의 2015년 사업 안내 및 2014년 사업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III. 2015년 사업안내 및 2014년 사업 결과보고[이응철 과장님]

- 회의 자료 참고

그럼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부위원장님이신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안건토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IV. 안건토의 (진행 : 황원숙 부위원장)

#### (1) 윤석준 위원장의 위원직 사퇴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장님이셨던 윤석준 교수님께서 심평원에 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상임이사직을 겸직하시게 되셔서 도저히 오실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의를 표하셨고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의 사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위원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위원장님을 오늘 선출하여야 하니 위원장직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회장직은 당연직 위원이신 황원숙 소장님께서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 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신지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은 황원숙 소장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직도 추천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요.

치과의사회 윤여은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은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맡게 되었고요, 부위원장직은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님께서 맡으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소장님]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위원장직은 보궐의 의미로 위원장직이 언제까지 인가요? 2017년 7월까지죠. 그럼 제가 그때까지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위원을 다시 구성하실 때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인사말씀 해주시죠.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여러팀원들과 협조하여 알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2015년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다음안건은 2015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및 의결로 첫 번째 치과치료 지원 기간의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약 후 치료에 응하지 않는 학생발생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제한된 치료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기간경과시 다음 지원 대상 학생을 우선 지원하다는 의견인데요.

### 1) 치과치료기간의 제한

현재는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가요?

[홍성미 담당자]

네! 현재는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님께서 어떤의견이 있으신지요?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항목중에 기타 보철이 영구치 크라운까지 인가요?

[홍성미 담당자]

네, 보철로 크라운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신경치료해서 크라운까지, 보통 간단한 치료라면 총치가 여러개라고 해도 학생이 약속시간에 온다면 한달정도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신경치료를 들어가서 길어진다고 해도 2개월 정도면 치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상태가 안좋아서 길어진다고 해도 3개월 정도면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치료가 안끝났는데 내원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작년에 이렇게 검진까지 받고 치과치료에 응하지 않은 기관들을 목록을 받아서 각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 전화를 했더니 센터에서는 부모님들과 가라고만 하고 센터에서 관리를 안한거예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아이들과 가정에 일임을 한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셔서 낮에 치과에 방문할 수 있는 분도 안계시고



해서 못챙겼던 것 같고요. 센터에서 좀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였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 주에 홍성미 주무관님이 오셔서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검사하고 나서 구강교육하고 하실 때 한번더 센터에서 좀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안내를 해주시고, 저도 돌아가서 센터장님들께 아이들의 치과치료적인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가는 치과들이 거의다 가깝게 있죠?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치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내에 다 있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아야할 아이들이 몇세 인가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니까! 충분히 혼자 갈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요. 중학생들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선생님이 가시거나, 부모가 가야하는 입장이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저도 같이 가봤는데요, 중학생도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보니 정서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와 같이가서 동행하지 않으면 치과치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선생님을 붙잡고 울기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선생님조차 없으면 안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아이들을 가게 했는데 아무도 안간거예요. 다음날 다시 바로 예약 잡고 부모님들께 전화 다 돌려서 방과후 빼고 치과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약한 시간에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제가 보기에는 김은영회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치과기간의 제한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 보다는 보호자나 관리자가 치과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문제이지만 체감이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해결을해주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던지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 보다 인식 변환을 통해 헌신해 주면 치과선생님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는 치료하는 문제보다는 아이들로 인해서 스케줄 조절도 힘들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약속이 미뤄지고하면 그 자체가 힘든것이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치료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정도지요. 3개월 지나도 가지 않는?

[홍성미 담당자]

20% 정도의 아이들이 가지 않고 있어서 독촉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든 어째든 저도 혼자 치과 가기 무서운데 아이들 혼자 치과간다는 것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치료는 해야하는데 보호자 문제 때문에 치료시기가 3개월지났다는 것 때문에 안해준다든 것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선생님 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도 시켜야하고 스케줄 조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3개월 지나서 까지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를 완전히 치료제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미루는걸로 하고 치료의 기회는 있는 것이니까.

치료 대기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아이를 지원하되 3개월이 지난 아이들도 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나 보건소에서 되도록이라면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호자에게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에서 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센터별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아무래도 센터 선생님이나 센터 장님이 전화를 해야 부모님들께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저희는 본인이 치과치료를 거부한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한달 안에 치료가 다 끝났거든요. 계속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주는 거예요 2012년에 20명이었으면 2013년에 15명 작년에 10명정도로 줄더라고요.

김은영 회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 많은 지원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은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되 아이들이 제외 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라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2)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 1:1 연결

둘째 안건은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1대1 연결로 담당 주치의제를 하자는 의견인데요. 현재 참여를 신청한 치과의원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는 치과는 제한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담당치과의원을 지정하여 담당치과주치의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치과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제가 참여 현황을 보니 적절하게 잘 배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시 되는 것들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과였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한 병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치과를 분산해서 빠른 시간에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봉사적이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참여 의원이 42개소인데 방문하는 곳은 25개소라는거고, 지역아동센터는 25개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면 1대1로하면 참여하는 치과가 남잖아요? 홍성미 선생님 의견주세요

[홍성미 담당자]

계속 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82개소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계한곳은 28개소 밖에 안되고, 작년에도 42개가 참여신청을 하셨는데 연계는 25개소만 되어서 가는 곳이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1대1로 연결하면 관리도 잘 되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의견을 냈습니다.

1대1로 하게 되면 4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 때문에 아이들이 못가는 것이지 치과선생님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꼭 1대1로 연결을 한다면 치과의원 쪽에서 소외가 됐다고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치과치료가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지역 치과협회에서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도 같이 받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이사업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1대1로 해 버리면 취지에 맞지 않는게 아닐까 합니다. 너무 편의 주위적인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드는데요.

고애경 선생님은 어떤의견이신지?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도 소장님 생각과 같은데요.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1:1이 좋겠지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상태로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도 지금 방향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센터당 치과의원현황을 보면 김종탁 치과 원장님께서 4군데 지역아동센터를 혼자 치료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한 치과에 집중

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은 센터에서 치과 중에 학생이 원하는 치과로 가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하는 건가요?

[홍성미 담당자]

학생이 원하는 치과로 가고 있습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지역에 따라서 아동수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습니다. 장위동 같은데는 아동수가 많아요. 김종탁치과 같은 경우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고 종암동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적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3명 치료했는데 3개 치과가 1명씩 참여 했네요. 센터가 위치해 있는데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어느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실수 있다면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치과주치의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42개소가 참여하시나요?

[홍성미 담당자]

4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1:1 매칭은 어려울 것 같고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한 센터가 2개치과로 가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4년차에 접어든 사업이라 저희도 김종탁치과 원장님, 차앤안치과 원장님, 박치과원장님 치과가 근처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탁 치과 원장님이 꼼꼼하게 잘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몰린 거거든요. 연차수가 오래 되다보니 작년엔 더 많이 몰린 거예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김종탁 치과원장님이 봉사도 참 많이 해주세요. 돈이 초과되는 것도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1:1로 매칭을 한다면 센터에서는 아쉬움도 많고 할텐데 그것까지 감안할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치과의원들과 연계를 1대2또는 1대3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주치의의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 나중에 센터 선생님들도 치과치료를

받을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서 우리팀에서 현황이 나와있으니까 이번에 참여 신청한 원장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조정을 통해서 매칭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탁 치과의원은 2~3개로 제한하고 지역같은 것을 감안 해서 1대2나 1대3 정도로 안배를 하고 원장님들께도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결이 되었 으니까 잘 봐주십사 하고 안내를 통해 서로 보안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치과의사의사 회장님께서서는 어떠세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김종탁치과원장님은 치과의사회에서도 덕망도 높으시고 워낙 잘해주시니까 주위의 치과선생님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김은영회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40개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3)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제3안으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원봉사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하는데요?

[홍성미 담당자]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분께 교통비로 1일 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예산도 회의 운영비 만 쓰면 다 끝나는 정도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작년에도 회의 내용에 있었는데 무보수 봉사자 를 모집할 수있다고 자원봉사팀에서 그러셔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지합니다.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요즘 아이들이 부모말도 잘 안들어요. 자원봉사자가 설득을 해서 치과를 가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데요. 금연서포터즈운명을 해봤는데 운영이 안되요. 보수가 있어야 해요. 대학생들 멘토 활용을 해보지만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 하는 건인데 이걸 잘 운영이 되요. 왜? 보수가 나가니까? 자원봉사자 매칭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부모가 데리고 가야하는데 부모가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자원봉사자가 이 학생을 치과로 데리고 가야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설득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몫이 아니고요. 센터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설득하고 치과에 간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치과에 데려가고 치료 끝나면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연계라는게 그래요. 자원봉사라는게 단순 노력봉사거든요. 자원봉사자도 힘이 든거예요. 자원봉사도 어디가서 풀을 뽑거나 청소를 하는 것은 쉬워요. 치과를 가야하는데 솔직히 부모가 가야하는데 갈수 없어 데리고 가는 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와 연계 개념이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은영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저도 자원봉사팀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센터에서 설득을 해봤다가 봉사자와 함께 가는길에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자원봉사도 아이랑 관계형성 이있어야 되요. 내가 한 아이에 대해 멘토의 역할을 쪽하면서 치과적 문제가 있어 치과에 데려간다 이건 가능한데, 관계형성 없이 치과에 데려간다 이건 썩뚱맞은 거죠.

보수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동행 잘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보수를 받고 해주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자원 봉사를 무보수로 모아서 치과연계 동행이라는 것을 하는것은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작년에 자원봉사 요청이 한건도 없었다고?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2012~13년에는 자원봉사자 보수가 나갔기 때문에 자원봉사연계가 많았어요.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첫해 자원봉사자 보수가 나갔었는데 그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보수관계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관계형성이 되어야 데리고 가는데, 취지는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인데 저도 치과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썩뚱맞은 사람이 와서 ‘야 치과가자’ 그러면, 매칭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지?

2014년에 실적도 없었는데 이것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홍성미 담당자]

2014년에 실적은 있어요. 저희가 자원봉사팀에 문의했을 때 저희에게 1365프로그램을 깔고 올리라고 해서 자원봉사팀에 따로 요청이 간 것은 없는 거고요. 거기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울때 자원봉사팀에 요청했는데 그 날짜에 봉사자연계가 어렵다고해서 안된 거고요. 작년에는 13건 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데려갈 때 지역아동센터를 가야합니다. 가는데 차비도 들고 아이들 데려갈 때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아니면 음료수라도 사주면서 가야하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미 담당자]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검진이 끝나고 치과치료 필요 아동명단하고 자원봉사자 요청에 동그라미를 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 연계를 해주고 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큰나무학교지역아동센터만 요청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구테여 이예산을 없애야 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말자는 말인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예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구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예산은 무조건 지원하는데만 쓰는거죠. 여기서 조금 어떻게 자원봉사비로 돌리수는 없어요?

[홍성미 담당자]

예산 자체가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있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13건 정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밑 듯이 밀려와서 자원봉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수를 전혀 안들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자원봉사 추세가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자원봉사도 보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 자원봉사라는게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시대가 준 강요에 의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의 취지가 무색해 졌는데요.

각 아동 센터에서 연간 자원봉사를 요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를 원하는 센터별로 부모가 못데려가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하는 요구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하느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봉사라서.....!

보수라기 보다는 최소의 실비 지원을 없애는 것은 반대입니다.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성미 담당자]

저희가 자원봉사 사이트에 모집을 올리면 신청하신 분을 자원봉사로 합니다.

신청은 자원봉사 등록되어있는 분들 중에 가능합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자원봉사자 신원은 어떻게 확인 합니까?

[홍성미 담당자]

신원은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 지역 등이 나오면 전화해서 시간 같은 것을 조율 하여 봉사연계를 합니다. 신원조회는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아동이기 때문에 봉사자 신원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신원조회를 다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1356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할텐데 1365나 vms에서 신원조회까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는 않거든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할때도 신분확인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작년에 신청이 한센터였고 그 센터는 초등학생만 40명 이상이라 아이들이 많아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치과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는 위치에 있는 치과로 가는데 센터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센터 봉사자들이 가시거나 공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 아동학대나 성범죄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해서 하는 추세이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나쁜분들은 아닌데 예방차원에서는 자원봉사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신원조회를 할 수는 없겠지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니 신원 확인 문제도 있고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동단위로 청년지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 관계가 되면 자원봉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수 있을 텐데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서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년에 해봐야 몇건 안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협력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에 가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하겠지만요.

자원봉사센터에만 의지하지 말고 동자원이라던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분에게 아이들을 맞기는 것이 요즘 세태에서는 위험 할 수 있으니 최소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요하게 될 때는 실비 만원 지원하는 것은 일단 없애지 말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갈 것 같지는 않으니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자원 봉사자비로 목을 잡아 백만원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원옥 자원봉사 팀장]

자원봉사를 풀제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을 뽑아놓고 운영을 하여야지 신원도 확인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풀제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으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4) 치과 치료비 지원 단가 결정

제4안으로는 치과치료비 지원단가 결정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홍성미선생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미 담당자]

올해 치과치료비 지원 예산이 구비가 300만원 확보되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상태고요. 치료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지원했던 단가이기 때문에 치과원에서 다른 변경 요청이 있으시면 지금 결정해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작년수준하고 같이 한다면 따로 치과의사회원님들께 설명하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떤치료가 주로 많았나요?

[홍성미 담당자]

레진치료가 많았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레진 치료비가 저희가 하는 치료행위나 재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레진이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거죠?

[홍성미 담당자]

레진이 28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타 보철이 43건정도입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2012년 처음 시작 할때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홍성미 담당자]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레진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유치영구치로 구분하여 단가를 정했고, 금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20만원 단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PFM이나 세라믹의 경우에는 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레진 치료비용이 너무 낮아서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회 의견이신데요. 예산상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레진이 인원이 많아서 이것을 인상을 하면 예산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레진치료를 위해 재료를 구매해보니 레진 재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레진치료비 만원을 올리면 작년기준인원이면 구비가 다 나가는 거예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레진비용을 조금 올리는 대신 다른 것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절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영구치레진을 5000원 인상하고 금관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치과의사회 회장님과 상의하셔서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치과의사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제5안은 기타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 대상아동 기준을 현재도 적용 하자는 의견인데요.

[홍성미 담당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나 지원을 하고요 기타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넣었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작년에 사업 목표가 9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미 담당자]

작년에 610명이 사업 목표입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가 어쩔수 없는 것이 저희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평가에서는 몇 %를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620명 목표인원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그 100%로는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최소한 150%를 채워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서초 같은 경우는 400%했다고 해요. 서초는 400% 했다고 해도 저희보다 인원이 훨씬 적어요.

[홍성미 담당자]

평가 점수 자체를 서울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업목표는 저희가 사전에 목표를 정해서 내면 서울시에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인원에 맞춰 목표인원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작년과 같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안건

[홍성미 담당자]

추가적으로 아가세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중 만 18세 이상인 장애아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보는 나이가 만 18세 미만아동인데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줘야 하는지 서울시에 문의 해보니 의료지원 협의체에서 지원해주기로 승인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치료에서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치과에서 치료적인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만, 보철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18세는 넘었어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있는 학생이면 현재 한명 이라면 그 학생만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체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외에 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센터장님들 센터선생님들의 협조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김은영 회장님께서 정보가 없거나 인식이 부족한 센터에 정보제공 및 오리엔테이션등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협업체 회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치과의사회에서도 치과치료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점이나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권계 들이 있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센터들을 찾아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1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으며

2안건은 치료기간의제한은 3개월의 제한을 두되 제한 인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하고

3안건은 1:1연결보다는 40개의 참여치과의원이 전부 배정이 되도록 라포가 형성되어있는 치과로 잘 연결시켜주도록 팀에서 적절하게 배정하고

4안건은 봉사자 운영 방안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풀제를 운영하면서 만원의 실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5안건은 치과치료비 단가는 영구치 레진치료는 조금 인상을 하면서 다른 보철비용을 감 하는 것으로 하며 추후 치과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함.

6안건은 2015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아동은 지역아동센터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을 우선지원하되 그 외 6~8세 아동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아가세지역아동센터의 1명아동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것으로 승인 하겠습니다.

**안전토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I. 폐회**

**[이춘옥 팀장]**

진행해 주신 황원숙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2015년에는 제1차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